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요문화전당 활성화 힘 모은다

‘호남권 상생’ 정책협의회 12개 과제 내용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3자로 구성된 호남권정책협의회는 과거에 비해 논의의 안건도 구체적이고, 상생에 대한 기본인식도 철저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4년 첫 모임 이후 5차례 논의된 안건은 모두 44건이었으나, 대부분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노력’, ‘호남권 레저산업 발굴’ 등 다소 추상적인 주제에, 이후 이에 대한 평가나 향후 대응 등도 하지 못해 ‘모임’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6년만에 재개된 호남권정책협의회는 호남권 쇠락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윤·이·송 등 3자가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있어 과거에 비해 다소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모두 12건이다.

호남권 쇠락 위기의식 공감 공동 의제 발굴·교류 강화

공무원 시도간 인사 교류 관광벨트 구축 본격 추진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전당을 축으로 해 광주·전남·전북이 다양한 축제 등 이벤트를 공동마케팅 전략을 짜고 국내 및 중국 관광객을 유치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주간 설정 운영, 관광상품 공동개발, 전당 내 공동문화관 설치 협력, 초·중·고 수학여행단 방문 등이 언급됐다.

또 내년 7월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성공개최도 주제로 다뤄졌다. 윤 시장은 “이 기간동안 전남과 전북이

■ 호남권 상생협력 12개 과제

제안 기관	과제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광주영어방송 호남권 전역 송출
전남도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
	호남권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도·시립 공연예술단 구축
전북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해안(군산~목포간) 철도 반영
	호남실학원 설립
	전북 119안전체험관 체험홍보
	2014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

축제 등 이벤트 일정을 조정하고 입장권을 구매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주영어방송 호남권 전역 송출 확대,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 등이 제안됐

다.

◇호남권정책협의회 공식기구나, 기반 마련 =전남은 6년만에 재가동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호남권정책협의회의 향후 장기적인 운영

을 위해 규약을 3개 시·도가 마련할 것을 안건으로 내놨다. 다음달까지 안을 작성해 검토한 뒤 시·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도 간 정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와 함께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도·시립 공연예술단 교류 등도 광주·전북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몇백년 동안의 향·예·미의 고장으로 칭송돼 오던 호남이 우리 세대에 와서 작아졌다”며 “작아진 호남을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 오늘을 계기로 한가지씩 합의하고 실천해가면서 3개 시도시사가 공동 발전하고 호남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가자”고 말했다.

일단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던 평가 받고 있다. 이후 미래 핵심산업에서의 중복 문제, 기반시설 우선 문제 등을 조율하면서 이들이 ‘작아진’ 호남의 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표〉

지난 5일 제6회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공동의제 발굴에 나서며, 전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이들 3자는 이외에도 수시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실무회의는 횡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7회 호남권정책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광주에서 열린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대응 =전북은 광주·전남에 환 환해권 시대 서해안(새만금)지역을 중국산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서해안(군산~목포 간) 철도를 반영하자며 협조를 요청했다. 총연장은 141.4km로, 사업비는 3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 112개 가운데 올해 말 공청회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또 부안군 보안면에 건립 예정인 호남실학원(사업비 19억원)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학술대회 등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광주·전남의 참여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송 지사는 지난해 상반기 개관해 호남권 유일의 안전체험관인 ‘전북 119 안전체험관’ 체험 홍보, 2014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 등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윤 시장은 “2014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초대해달라”고 축사에서 응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도움 필요 =광주시는 최대 지역현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 전남과 전북의 지원을 바랐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12개 과제의 상생 협력안에 서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이·송 순창서 만나 복분자주로 ‘상생의 원샷’

송지사 “부인 전남여고 출신”... 이지사 “난 3대째 전북 여자와 산다” 장단

호남권 광역단체장 6년만의 재회 막전막후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6년만에 머리를 맞댄 건 이낙연 전남지사의 노력 덕분이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호남 상생 및 발전을 위해 ‘전북 배려’를 강조했으며, 이 같은 자세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송하진 전북지사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장형’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 같은 이 지사의 통 큰 행보에 적극적 우군이 됐다.

지난 5일 6년만에 가동된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송 지사는 “이 지사가 제안하고 저와 윤 시장이 동의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이 지사의 ‘공’을 높이 샀다. 지난 7월15일 광주·전남 언론과의 첫 인터뷰(광주일보 7월21일자 3면)에서

‘호남에서의 전북 소외’를 강조하며, 신속한 3차 회동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후 두 달간 이 지사의 설득이 성과를 내면서 지난달 19일 인천아시아게임 개막일에 국회에서 회동한 윤·이·송은 5일 순창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실무진은 그후 낯설었지만, 각각 4개씩 현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오갔다.

오랫만에 재개되는 만남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의식한 듯 3자는 지난 5일 제6회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

협의회가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 40~50분씩

일찍 도착해 사전 조율을 하고, 토의시간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실수’를 최소화하는데 치중한 것이다.

이들은 서해안(군산~목포 간) 철도 건설 공동대응 등 12개 사안 외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국회 예산 확보 활동에 경쟁 없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큰 성과였다. 또 윤 시장은 “호남실학원 및 호남권 한국학 연구원 관련 문제는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 이 지사는 “새만금이 잘 되면 서로 좋은 것이며, 이제 경쟁은 아니다”, 송 지사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MOU를 체결하고 바람을 일으키자” 등의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

려하기도 했다.

1시간 30여분 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친 세 사람은 황숙주 순창군수가 마련한 만찬 장소로 이동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동안의 ‘신중 모드’에서 벗어난 3자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황 군수 등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순창병주와 복분자주를 연거푸 ‘원샷’하며 정을 쌓았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광주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송 지사는 “고시 합격 후 선을 주선 해주는 할머니가 자주 찾아왔는데, 소개해주겠다는 여자 모두가 마음에 안 들었다”며 “결국 할머니의 수첩을 직접 보고 고르는데 이름만으로도 딱 이 여자다 싶어 광주에서 선을 봤다”고 윤을

됐다. 그는 “전남여고를 나왔다고 하는데 첫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난 저 여자분과 하겠다고 말했다”며 미소지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난 할머니도 전북이고, 어머니도 전북이며, 아내도 전주여고를 나와 3대째 전북 여자와 산다”고 장단을 맞췄고, 윤 시장은 “이 지사의 부인께서 때 미인이시다”며 좌중을 웃음으로 이끌었다.

윤 시장은 “처가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송 지사에게 “지금 비엔날레 기간이니 방문해 달라”고 축사에서 요청, 송 지사의 ‘처가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만찬은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으며, 빈 술병도 늘어갔다.

윤·이·송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모두 성격이 소탈하고 서로에게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첫 만남이었지만 마치 형제처럼 다정했던 이들 3자가 향후 ‘호남 상생’의 큰 걸음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